11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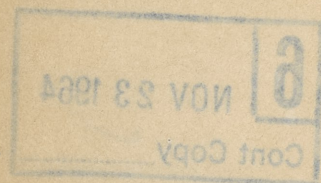
13호 7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3 호 (251)

1964년 7월 (상)

(반 월 간)

차 례

당의 인전대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

최근에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새로운 현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농민 동맹을 해체하고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상응하는 직업 동맹의 직능을 규정함으로써 직맹이 자기의 사명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원 회의가 취한 이 조치들은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한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창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는 현명한 조치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혁명 과업 즉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면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광범한 농촌 근로자들을 보다 조직화하고 그들을 더 잘 교양하여 당이 내세운 과업 수행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는 강력한 인전대가 있어야 한다.

해방 직후 농민들의 대중 단체로서 조직되였던 농민 동맹은 새 조국을 건설하며 특히 우리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농민 동맹은 오늘 우리 나라 현실에 잘 부합되지 않게 되였다.

우리 농촌의 새 현실과 농민의 변화된 처지는 농민 동맹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 협동 농민을 비롯한 농업 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을 망타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점차 없애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새 조직체를 창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촌은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의 처지와 그의 구성, 그 사회적 역할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나라 농민들은 모두다 협동 경리에 망라된 사회주의 근로자들이며 그들의 정치적 각성은 비상히 높고 문화 기술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우리의 협동 농민들은 토지 개혁, 조국 해방 전쟁,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협동화 등 간고한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로동 계급과의 불패의 통일을 형성하였으며 전후 농촌 경리를 복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들은 오늘 우리 당을 무한히 따르고 있으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 10여만 명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수 많은 제대 군인들을 파견하여 농촌 핵심 대렬을 확대 강화한 당의 조치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구성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특히 우리 농촌에는 새로운 국가 지도 체계가 확립되여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협동 농민들이 밀접한 유기적 련계 밑에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우리 농촌의 새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농민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체 농촌 근로자들—협동 농민들과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며,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수행에 적극 기여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데 더 잘 이바지할 수 있는 새 조직체로서 농업 근로자 동맹을 내오게 한 것이다.

실로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할 데 대한 금번 우리 당의 조치는 항상 현실에 대한 심오한 연구에 기초하여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옳은 해결 방도를 강구하며 혁명을 부단히 새 승리에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생동한 례증으로 된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앞으로 조직될 농업 근로자 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과 국영 농목장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 단체이며 당과 농업 부문의 근로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기본 임무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전원 회의 결정서)

농업 근로자 동맹의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완수하는 데 있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도록 농민 대중을 교양하며 조직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에서는 농업 근로자 동맹이 사상 혁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협동 농민들과 농업 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제 1 차적 사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였다.

농촌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모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기본 열'쇠로 된다. 특히 농업 부문의 근로자들 속에서도 청년 동맹원이 아닌 비당원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을 조직 생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데 심중한 주목이 돌려져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근로자 동맹은 농촌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 교양과 문화 교양을 강화하며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제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그것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 근로자 동맹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농촌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일어 난 당시에 비하여 더욱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이 운동의 내용과 그에 대한 지도에서도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튼튼히 틀어 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움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 근로자 동맹은 농촌의 로동 행정 사업과 사회 보험 사업에서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로동 규률을 강화하고 생산 능률을 부단히 높이며 농민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모든 혜택이 정확히 돌려지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 조직될 농업 근로자 동맹은 광범한 농촌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인전대로 될 것이다.

＊ ＊

다음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직업 동맹 단체들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금번 전원 회의의 조치는 우리 사회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의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지난 기간 직업 동맹은 당의 지도 밑에 자기 대렬 내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당 주위에 집결시키고 그들을 당 정책 실현에 적극 조직 동원하였다.

특히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직업 동맹 앞에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 과정에서 직업 동맹 단체들의 사업은 더욱 개선되였으며 자기의 본신 임무 수행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런데 직업 동맹의 조직 체계에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으며 또 그 사업에도 일부 낡은 틀이 남아 있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직업 동맹이 당 정책 관철에서 능동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당을 더욱 적극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결함들이 제거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금번 전원 회의는 일부 직맹 단체들의 사업에 남아 있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직업 동맹의 조직 체계와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 정권 하에서 직업 동맹의 중심 과업은 로동 계급을 부단히 교양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고 혁명 과업 수행에 적극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직업 동맹의 기본 임무는 로동 계급 대렬을 공산주의적 붉은 대오로 계속 튼튼히 꾸리며 그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혁명 위업 실천에 적극 조직 동원하며 근로자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고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데 있다.》 (전원 회의 결정서)

직업 동맹 단체들은 로동 계급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하며 특히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거하여 당원들과 청년 동맹원들을 제외한 직맹원들의 조직 생활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문화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공업 생산 공정이 하나의 기술 공정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생산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는 최대의 예비가 기술 혁신에 있다는 사정으로 하여 특히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직맹 단체들은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일반 문화 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문화 위생적으로 살고 일하도록 책임적으로 사업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직업 동맹의 중요한 임무로 되는 것은 당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공장, 기업소에 부과된 생산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직맹 단체들은 공장, 기업소, 직장들에서 생산 과제의 실행을 전'적으로 책임 지는 립장에서 기술 혁신과 로동 규률의 강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국가 재산의 애호 절약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기업 관리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고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는 투쟁에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직맹이 로동 보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직접 조직 집행하며 이 사업을 로동자들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로동 보호 사업을 로동자들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직맹 사업에서 낡은 틀을 청산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이와 같이 금번 전원 회의는 새로 조직되는 농업 근로자 동맹의 기본 임무를 천명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 상응한 직맹 단체들의 직능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직업 동맹과 앞으로 창설될 농업 근로자 동맹은 그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명백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각급 당 조직들은 농업 근로자 동맹 조직 위원회들과 직맹 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그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세심히 보살펴 주고 적극 도와 줌으로써 그가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인전대로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하며 직업 동맹 단체들의 역할을 일층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적 령도 체계와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

화하며 우리의 혁명 대오를 더욱 튼튼히 결속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당의 령도적 역할이 강화될 때에만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강화되고 모든 전선에서 계급 진지가 공고화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게 된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배격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자면 우선 당 자체를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높이는 동시에 인전대들을 강화하고 그의 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매 시기 조성된 정치 정세와 대중의 준비 정도 등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적시에,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실로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은 항상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며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우리 당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당 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하였으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당 위원회들을 강화하기 위한 독창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생산 단위의 당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한 것 등은 이의 명백한 실례로 된다.

또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에 기초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당'적 지도가 대중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게 되였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직맹, 민청, 녀맹 등 근로 단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그가 당의 인전대로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바로 이 방침에 따라 얼마 전에 민주청년 동맹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되였으며 금번 전원 회의에서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하고 직맹 단체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와 같이 금번 전원 회의가 취한 조치는 당'적 령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더우기 농업 근로자 동맹의 창설은 김 일성 동지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기한 사상과 명제를 구체화한 조치로서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혁명의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이 농민에 대하여 옳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농촌의 면모와 농민의 처지 및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계속 차별시하는 관점과 립장은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유해로운 것이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테제에서 천명된 농민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하고도 정확한 립장, 농민들의 힘을 믿고 그들을 차별 없이 당의 넓은 품에 포옹하며, 농민들을 완전히 책임 지는 립장에서 지도하고 방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에까지 이끌어 가야 하며 또 갈 수 있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 혁명적 군중 로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의 조치는 우리 농민들을 무한히 흥분시킬 것이며 당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강력히 고무할 것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농촌에 있는 로동자들과 농민을 단일한 조직체에 망라시킴으로써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조직적으로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며 로동 계급이 달성하는 과학 기술적 성과들과 선진적 기업 관리 방법 및 생산 문화를 농촌에 더 잘 보급하게 함으로써 테제에서 제시된 웅대한 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실로 이 조치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정치 경제적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당과 대중의 통일을 불패의 것으로 강화할 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가져 오게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이후 그들을 교양하여 공산주의에까지 이끌어 가는 가장 훌륭한 조직 형태를 창조하였다.

이것은 농촌 문제 해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실천적 기여로 된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적 령도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확고히 립각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궁지로 된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금번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여 도시와 농촌의 전체 근로 대중을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 오도록 힘차게 투쟁하며 전진하자!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6.3 봉기에 대하여

하 양 천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간 남조선 전역을 휩쓴 청년 학생들의 애국 투쟁은 4.19 인민 봉기 이래 최대의 사변이였다.

이 투쟁은 남조선의 42 개 지역에서 53 개의 대학, 173 개의 중고등 학교 학생들과 일부 시민까지 포함하여 연 31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적 투쟁이며 5만 9,900여 명의 괴뢰 무장 경찰과 피어린 투석전을 전개하면서 1,570여 명의 괴뢰 경찰들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2 개월 반 동안이나 지속한 완강한 투쟁이였다. 투쟁의 최고 절정인 6월 3일에 이르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괴뢰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괴뢰 대통령과 국무 총리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와 《중앙청》까지 육박하게 되자 적들은 5만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한 일 회담》 반대로부터 시작된 애국적 시위 투쟁은 매국 배족적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반《정부》적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한때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는 적의 통치 기구가 마비 상태에 빠지고 데모대가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사실까지 있었다.

실로 이것은 그의 성격 및 조직성과 의식성, 지구성 등에 있어서 전후 시기 남조선 인민들의 구국 투쟁에서 질적으로 더욱 발전된 애국 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다.

오늘 이 투쟁을 정확하게 평가하며 여기에서 경험, 교훈을 찾는 것은 앞으로 남조선 청년 학생 투쟁과 전반적 혁명 운동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투쟁의 의의

이 번 투쟁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남조선의 혁명 운동 발전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투쟁은 4.19와 같이 현 《정권》을 타도하지는 못 하였으나 미제 예속 하의 괴뢰 파쑈 통치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의 극동 정책과 일제의 재침 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남조선 학생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투지와 애국적 기개를 국내외에 시위하였다.

미제의 조종 하에 진행되여 온 《한 일 회담》 조기 타결 음모는 파탄되였으며 제 2 리 완용으로 규탄 받던 김 종필은 독재 정치의 주요한 직책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일본 학생들이 괴뢰 재일 대표부 앞에서 시위하였으며 미국에 있는 남조선 류학생들도 괴뢰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학생 조직들과 대중 단체들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적 조직과 모든 나라 학생들과 인민들이 그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 성원하고 있다.

둘째, 이 번 투쟁을 통하여 괴뢰 통치 기구의 부패, 무능이 인민 대중 앞에 여지 없이 폭로되였으며 앞으로 통치 계급 내부의 모순과 분화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가혹한 폭압 하에서도 애국적 민주주의적 투쟁 력량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계기가 조성되였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삼척, 북평의 중고등 학교 학생들까지 《총칼이 아니면 유지 못 하는 정부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라고 파쑈 통치에 항거하고 있다. 미국 신문 《볼티모어 썬》까지도 《한국의 장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자기의 기대와 신뢰를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날 때까지 폭발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시사하고 있다.

세째, 이 번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학생들 자체의 요구와 의사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대변하는 선구적 교량적 역할을 놂으로써 인민 대중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켰으며 청년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주요한 혁명 동력의 하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증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수'적으로도 110만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증이 실업증이 되고 정치적 탄압이 심한 오늘의 사회적 처지로 인하여 자기들의 원쑤에 대한 반항력이 강하다. 그들은 광주 학생 사건을 비롯한 오랜 애국 투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4.19의 정치적 체험을 겪은 조직된 력량이다. 그들은 미제 강점 하 남조선 인테리들의 고유한 혁명적 특성으로부터 생기는 선구적 교량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네째, 이 번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더욱 단련되였으며 투쟁 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3.24~6.5 기간의 투쟁 전 과정에서 청년 학생들은 조직성을 보여 주었으며 투쟁 구호와 투쟁 형식과 전술에서 많은 창발성과 기동성을 발휘하였다.

투쟁의 발생 원인

이 번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인 투쟁은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한 김 종필의 일본 방문을 도화선으로 하여 개시되였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남조선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와 생활고 및 파쑈적 폭압 하의 극도의 무권리로 하여 인민 대중 속에 오래 동안 쌓였던 극도의 불만이 놓여 있다.

그것은 우선 미제의 조종 하에 감행된

괴뢰 정권의 매국 배족 정책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 책동에 의한 새로운 민족적 모순의 조성에 따르는 반제 민족 감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한 일 회담》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위기에 처한 식민지 통치를 수습하고 나아가서는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조작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극동 침략 정책의 하나이다.

최근 년간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이 총파탄에 이르게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책동으로서 《한 일 회담》의 시급한 결속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더욱더 친미, 친일적인 박 정희 도당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조종하여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둘러 왔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 책동에 편승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그들은 이미 50여 개의 일본 상사들의 출장소와 주재소들을 남조선에 상주시키고 경제적 침략과 함께 사상 문화적 침략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지어 일본의 반동 종교 단체인 《창가 학회》까지 끌어 들이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에는 문'자 그대로 《한 일 합병》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민족적 위기가 조성되였다.

이것은 과거 36년 간 일제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망국노의 설움을 체험한 남조선 인민의 반일 감정을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정의감이 강하고 4.19의 정신을 계승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민족적 의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교도 통신이 《한 일 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뿌리가 깊고 이것이 일거에 표면화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다른 한편 군사 정권의 파쑈 테로 통치와 략탈적인 경제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이 4월 인민 봉기와 그 후의 거세찬 투쟁으로 쟁취한 약간의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완전히 유린하고 민생을 더욱 도탄 속에 몰아 넣었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 인민들과 특히는 청년 학생들 속에서 반《정부》적 감정을 더한층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 파쑈의 폭압 통치 하에서도 부단히 전개되여 온 남조선 인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작년에 있은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에서 박 정희와 《민주 공화당》의 투표률이 전례 없이 낮았다는 사실, 작년 10월 학생들에 의한 군사 《정권》의 전복 기도 사건 등은 박 정희 도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말해 준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모든 사태는 다름 아닌 미제 식민지 통치의 후과이다. 미국 출판물까지도 이 번 투쟁에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남조선 인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떤 쓸모 있는 수습책 하나 내놓지 못 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극히 적은 지지조차 받지 못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투쟁에 궐기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혁명적 민주 기지의 영향이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령도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였으며 자체의 원료 자재와 기술과 로력으로 인민들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지상 락원을 꾸려 나가고 있다.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는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 부유해 가는 인민들의 생활, 꽃 피는 민족 문화 예술, 날로 높아 가는 공화국 정부의 국내외적 위신, 조국의 평화 통일 방안과 남북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제의, 남반부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적 애국 행동에 대한 우리들의 동포애적인 지지 성원, 이 모든 것은 외세 의존과 《한 일 회담》을 반대하며 민족적 자주 통일을 념원하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과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에 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였다.

투쟁의 성격

이 번 투쟁의 성격은 반제 반《정부》적 민주주의 투쟁으로서 그 동력이 주로 학생들이였으나 전 인민적 성격을 띤 애국 투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혁명을 위한 모든 운동의 성격은 그 운동이 어떤 계급을 령도 계급으로 어떠한 계층이 참가하며 그 지도적 사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회 계급적 모순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선 이 번 운동의 령도적 계급과 참가한 계급, 계층은 로동 계급을 령도적 계급으로 하지 못하였고 또한 현시기 일부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의 민족 해방 운동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족 부르죠아지를 그 령도적 계급으로 한 것도 아니며 또 이들의 조직적인 참가도 없는 운동이였다.

즉 운동의 주도적 력량은 일부 시민들도 참가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계급이나 계층도 아닌 학생들이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해방 직후 민주와 반민주 세력 간의 치렬한 투쟁 시기에 일련의 정치적 진출 면에서 적극적이였던 것으로 하여 군중 운동의 전반적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반혁명의 공세가 강화되고 대중 운동의 점진적 소생기로 특징 지어지는 전후 4월 인민 봉기 전 시기에도 일련의 정치적 진출에 있어서는 다른 계층에 비하여 앞섬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4월 인민 봉기와 그 후 시기의 운동에서는 학생 청년들의 선구적이며 주도적 작용이 더욱 명확히 표현되였다.

즉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전복한 주력군도, 그 후 《그 놈이 그 놈이다》, 《장면 정권 물러 가라》고 하면서 그의 친미,

친일 정책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정치 투쟁의 선두에 선 것도, 가혹한 군사 파쑈 통치의 폭압 하에서 반독재, 반보수 및 반미, 반일 구호를 들고 일련의 정치 투쟁을 부단히 전개한 것도 학생들이였다.

이것은 남조선 학생들이 지닌 그 기질이 다만 청년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 진취성, 용감성 뿐만 아니라 강한 혁명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번 투쟁에서 학생들이 그들 고유의 단순한 리해 관계로 출발한 요구만을 제기하지 않고 전 인민의 리해 관계와 관련된 일련의 기본 문제들의 해결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그 어떤 《정부》 시책에 대한 개량적 요구가 아니라 통치 체계의 변혁을 지향하며 요구하는 학생들이 이 번 투쟁의 주도적 력량으로 된 사실은 바로 투쟁 성격이 가지는 혁명성과 진보성의 첫째 징표로 된다.

이 번 투쟁에서 표현된 민주주의 사상에서도 일정한 진보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민주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대치될 뿐만 아니라 제 2 인터나쇼날의 기회주의자들이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초계급적 《순수 민주주의》도 아니다.

남조선 학생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는 일체의 《외압》과 신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주권의 자주성에 대한 사상과 현 통치 체제 내에서의 《합법적 진보》가 아니라 현 제도의 혁명적 변혁을 지향하는 사상과 함께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정치적 권리의 획득을 위한 사상 등이 내포되여 있다.

이것은 이 번 투쟁의 지도적 력량이 대체로 애국적이며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자기의 정치적인 신조로 삼으면서 민족적 압박에 대한 반감과 남조선 사회 현실에 대한 환멸감으로부터 반미, 반일, 반《정부》적 의식이 비교적 높은 혁신적인 학생들로 되였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이 번 투쟁의 지도적 력량의 사상적 견해는 운동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구호와 요구 및 투쟁의 지향성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이 번 투쟁에서 첫째로,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 특히 일본 군국주의 재침과 관련하여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인민들 간에 얽힌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둘째로, 미 일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철저한 주구이며 국내 반동 세력의 괴수인 지주, 예속 자본가 및 민족 반역자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괴뢰 정권과의 계급적 모순을 비롯한 일련의 모순 해결을 들고 나왔다.

물론 이 두 모순의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가 그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다 철저한 것으로 되지 못 하였고 일정한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조성된 정세 하에서 적아 간의 력량 대비와 대중 운동 발전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일련의 문제들에서 절박하고 기본적인 것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중의 기본적 요구였던 《한 일 회담》의 중지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축출, 괴뢰 정권의 파쑈 통치의 기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앙 정보부》의 해체, 파쑈 정권의 타도, 매판 자본의 몰수와 민생고의 해결 기타 일련의 민주주의적 요구들은 모두다 현 정세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그의 해결을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들이다.

이 번 운동에 로동자, 농민 등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인민적 성격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조건 하에서 《전 인민적 운동》의 성격을 론하면서 이 혁명에 리해 관계를 같이하는 모든 계급, 계층이 참가하거나 그들의 동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리해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전 인민적인 운동이란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원쑤의 중심 세력에 심중한 타격을 가하면서 전체 나라의 객관적 요구를 표현하는 그러한 운동이다. 전 인민적 운동이란 절대 다수 주민의 공명에 의한 지지를 받는 그러한 운동이다》(전집 조선문 판, 제 18 권, 604 페지)라고 하였다.

나아가서 《반식민》, 《반외압》, 《미국은 가면을 벗어라》,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의 봉기》라는 등으로 남조선에 들어 온 제국주의 침략 세력 일체를 배격한 사실이라든가 《민족의 단결 없이 남북 통일할 수 없다》, 《민족 분렬을 획책하는 독재 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를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운동의 지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해 준다.

《구국 기조 선언문》에서는 학생들 자체가 이 번 투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의 혁명은 《민주 민족 혁명》이며 자기들의 투쟁을 《반보수, 반매판, 반외압, 반신 식민의 구국 항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 제 4 차 대회 총화 보고에서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혁명이며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혁명의 성격과 기본 상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투쟁의 특징

세 단계(1 차는 3.24~30, 2 차는 4.17~21, 3 차는 5.20~6.5)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 번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 투쟁은 그의 조직 및 진행 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특징적인 현상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금후 남조선 청년 학생 운동을 포함한 대중 운동 발전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남겨 놓았다.

그것은 첫째로, 매 단계마다 투쟁이 발전할수록 정치적 성격과 목적, 의식성이 더욱 명확하여진 것이다.

처음부터 명확한 정치성을 띤 요구들을 든 사실을 비롯하여 그것이 투쟁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 발전되였다는 것은 종래의 자연 발생적 운동에서는 찾아 보기 드문 하나의 발전적 현상이였다.

례하면 박 정희 《정권》을 반대한 구호 하나만 보더라도, 1 차 시위 때에는 주로 《한 일 회담》 반대에 예봉을 돌리면서 《김 종필 소환》 등의 구호를 들

고 나왔다면 2 차 시위에서는 《4월의 붉은 피는 매국 정권을 증오한다》, 《4.19 정신, 반정부, 반불의, 반독재》, 《중앙 정보부 해체》 등으로 박 정희 《정권》을 정면으로 규탄하였다. 3 차 시위의 후반기에 와서는 그의 타도를 제기하고 전면적인 폭동에로 나아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내 혁명 세력의 계급적 원쑤인 매판 세력을 반대하는 구호를 들었으며 반《정부》 구호를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호와 적절히 결합하면서 《우리는 민중의 편에 서 있다》, 《국민들은 우리 대렬에 함께 나서라》라고 인민 대중의 합류를 호소하였다. 이것은 학생 운동이 로동자, 농민 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종래 흔히 있은 산만한 운동과는 달리 일정한 투쟁 지도 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운동이였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이미 작년 봄부터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교, 연세 대학교 내의 선진 분자들에 의하여 준비되여 오다가 특히 작년 말 경부터 더욱 본격화되여 벌써 이 때부터 《한 일 회담》을 둘러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정책과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비판하는 군중적 계몽 운동으로 전개되여 왔으며 각 대학들 간의 일정한 련계도 맺어졌다.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는 시위 전에 이미 《한 일 회담 반대 투쟁 위원회》가 조직되여 구호판, 프랑카드, 삐라 등을 준비하여 시위의 전날인 3월 23일에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조직하여 군중을 발동시켰다.

시위의 조직성은 첫날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 고려 대학교, 연세 대학교 등 중요 대학들이 거의 동시에 호응하였으며 그것이 불과 2~3 일 간에 서울과 지방의 수 많은 학교들에까지 파급되였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투쟁이 확대 발전됨에 따라 투쟁 지도 기관은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학생 총련합회》 또는 민족이 처한 위기를 타개한다는 의미의 《난국 타개 학생 대책 위원회》 등으로 발전적인 개편을 하였으며 보다 광범한 학교들을 이에 망라시켰다.

세째로, 정세 발전과 투쟁 정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투쟁 구호를 제기하였으며 투쟁에서 나타나는 제한성을 점차 극복하고 다양한 투쟁 형식과 방법을 취한 것이다.

례하면 1 차 투쟁은 김 종필의 소위 측면 외교로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음모가 실현되려던 가장 절박한 시기에 《한 일 회담》 반대와 제 2 리 완용으로 지목한 김 종필에 대한 집중 공격을 가하였으며 2 차 투쟁은 4.19 4 주년을 계기로 4.19 정신을 모독하는 박 정희 《정권》을 정면으로 규탄하면서 더욱 완강한 기세로 반파쑈적인 민주주의 구호를 높이 들었으며 이에 민생 문제의 해결을 결합시킴으로써 전 인민적 투쟁에로의 확대 발전을 시도하였다.

3 차 투쟁 역시 환률 인상에 따르는 물가의 급격한 등귀 및 박 정희 도당의 학생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그들의 부패 행위의 폭로와 관련하여 대중의 반《정부》 감정이 더욱 높아진 정세 하에서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이행하였고 나아가서는 반《정부》적 폭동으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1 차 투쟁 때부터 투쟁의 중요한 약점과 제한성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 군중이 동원되지 못 한 것이다. 사실 상 학생들은 거의 단독으로 투쟁하는 형편에 있였다. 2 차 투쟁 때에는 《국민들은 우리 대렬에 함께 서라》고 의식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투쟁 대오에 합류하였다.

5월 20일 시위 때 체포된 시민 81 명의 구성을 보면 로동자 25 명, 실업자 26 명, 소상인 24 명, 기타 6 명으로서 남조선 사회의 기본 계층들이다.

3 차 투쟁이 시작되면서 더욱 많은 군중이 동원되였으며 일반 사회계의 동향이 학생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데로 나아갔다. 투쟁의 지도층이 적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포착하고 그에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투쟁 과정에서 경찰의 학원 침입, 군대의 법원 침입, 정보원의 학생 린치 사건 등을 들고 범죄자 처벌, 구속 학생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리 하여 법조계 대학 교수, 정계 인사 등 각 계층의 지지 성원을 받으며 많은 군중이 동원되였다.

대중 쟁취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서울 대학 문리과 대학생들의 5 일 간에 걸친 단식 투쟁이다. 단식 투쟁은 40 명으로부터 130 명으로 그 대렬이 확대되였으며 이들은 학부형, 교수, 언론계, 정계, 종교계, 로동자 등 각 계층의 지원을 받게 되였다. 6월 3일 많은 시민이 투쟁에 동원된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투쟁 형식과 방법에서도 평화적 담판과 적극적인 투쟁 방법을 엇바꾸어 진행하였으며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 《화형식》, 《가상 재판》 등 다양한 형식을 적용하였다.

네째로, 운동은 완강성과 지구성을 띠였다. 2 개월 반이나 전개된 운동은 시위의 첫 순간부터 괴뢰 경찰들과의 류혈적 충돌로써 시작되여 마침내는 폭동에까지 이르렀다.

괴뢰 정부는 수만 명의 괴뢰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최루탄과 곤봉으로 야수적인 탄압에 광분하였으나 오히려 괴뢰 경찰들은 많은 부상자를 내였으며 서울에서는 한때 괴뢰 경찰 기관까지 시위 군중에 점거 당하고 경찰관들이 도망질 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투쟁의 격렬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후 시기 남조선 인민 투쟁에서 파상적 투쟁으로 단숨에 74 일간을 싸워 본 례는 처음으로 되는 현상이다.

이 번 청년 학생 투쟁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서 의식성과 조직성을 더욱 제고하며 그 운동을 반드시 로동자, 농민 운동과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우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자기의 혁명 조직을 가져야 하며 자체 력량을 시급히 수습 정비하고 학생 운동의 통일

과 단결을 강화하며 나아가서는 광범한 각계 각층 인민들과 일체 애국적 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번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혁명적 각성이 높고 투쟁에서 적극적이며 진보적인 학생들을 묶어 세우고 광범한 학생들을 하나의 통일적인 조직에 망라시켜야 한다. 특히 신앙과 정견, 출신의 차이를 막론하고 반미, 반일, 반《정부》 반독재 감정을 가진 각계 각층 청년들과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투쟁에서 행동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에게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계몽 사업을 전개하며 그들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더우기 로동자, 농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요구 조건을 들고 그들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학생 운동 자체의 의식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 의식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될 것이며 남조선에서의 군중 운동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군대는 사실 상 군복 입은 로동자, 농민들이며 대학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많고 4.19 인민 봉기에 참가하였던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애국적 운동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되지 못하게 하며 민족의 군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 *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제,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파쑈적 폭압이 더욱 강화된 조건하에서 일시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나 청년 학생들은 자기 대렬을 재수습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합법적, 비합법적 온갖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 남조선의 식민지 파쑈 통치는 경제 위기와 민생고의 격화, 파쑈적 폭압의 강화, 외세에 의존하는 괴뢰 정권의 매국 배족 정책의 강행, 괴뢰 내각과 《민주 공화당》 내부 모순의 심각화에 따르는 여 야 간의 대립의 첨예화 등 정치 경제적 제 요인들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며 미 일 제국주의의 충복인 현 《정권》에 대한 청년 학생들과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증오와 불평은 또다시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남조선의 식민지 제도를 결코 구출할 수 없다. 파쑈적 군사 통치는 도리여 인민들의 투쟁을 가일층 격화시킬 것이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의 종국적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우선 《계엄령》 철폐 및 즉시 개교, 구속된 학생과 인민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원

사찰 및 학생 검거 구속 중지, 언론, 출판, 결사, 시위 등 학생들의 사회 정치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부단히 투쟁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과 회유, 기만 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면서 모든 계기와 수단을 다 리용하여 도처에서 《한 일 회담》을 파탄시키며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꾸준히 계속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유지되고 괴뢰 정권이 그 대로 존속되는 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오늘의 무권리와 생활고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병사, 지식인들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 민주 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박 정희 《정권》을 타도해야 하며 각계 각층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자주 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하며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인 조국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정의의 애국적 투쟁은 원쑤들의 그 어떠한 발악적 책동으로도 가로막지 못 할 것이다.

승리는 반드시 싸우는 인민의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과 혁명적 의리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는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통일과 단결의 중요한 사상-도덕적 요인으로 된다.

통일과 단결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에서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그의 강화는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에게 그 만큼 힘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 준다.

동일한 사상, 공통된 투쟁 목적에 기초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은 그것이 불패의 것으로 되자면 호상간에 믿고 사랑하며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고상한 의리 관계, 동지적 관계로 결합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혁명적 의리, 혁명적 동지애는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 처지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도덕적 풍모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다같이 일하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걸음걸음은 이러한 사회, 이러한 인간 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로정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자체 해방을 위한 그들의 투쟁 속에서 발생하였고 발전하여 왔으며 또 그 도가니 속에서만 진정으로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는 력사적으로 피착취 근로 대중이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형성 발전된 고상한 의리 관계의 계승이며 그의 최고 발전이다.

혁명적 의리는 계급 사회에서, 특수적으로는 부르죠아 사회에서 황금이 인간 관계 전체를 지배하며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승냥이》로 되는 그러한 인간 증오적이고 랭담한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동지애와 의리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리상—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 동지들이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맺는 진정한 믿음, 사랑, 존경, 배려, 지조의 총체이다.

이것은 인류 력사 상 일찌기 찾아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이다.

* *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과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선구자들은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의리의 훌륭한 체현자들이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과학적 공산주의의 위대한 창시자들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간적 풍모를 산 모범으로 보여 준 선구자들이였다.

맑스와 엥겔스를 결합시킨 우정, 동지애, 의리는 아직 력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간 관계의 구현이였다.

《옛'이야기는 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실례를 이야기하여 준다.—하고 레닌은 저서 〈프리드리히 엥겔스〉에서 썼다—… 이 두 사람의 교의는 인간의 우정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모든 옛'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에게 있어서 엥겔스는 《제 2의 〈나〉》로 간주되였다. 맑스는 엥겔스와 같은 열렬한 투사, 학자를 자기의 벗으로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언제나 만족을 금치 못 하였다.

맑스는 엥겔스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으로 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하였고 몹시 걱정하군 하였다.

맑스는 모든 면에서 엥겔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또 그에게서 찬동을 받는 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맑스는 엥겔스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각오로 충만되여 있였다.

엥겔스에게 있어서 맑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참으로 무한한 것이였다.

엥겔스는 자기의 스승이며 벗인 맑스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그를 가장 량심적이고 혁명적인 태도로 대하였다.

1848~1849년 혁명이 실패하고 반동기가 닥쳐 옴에 따라 가족이 많았던 맑스의 생활은 말할 수 없는 빈곤에 쪼들리게 되였다. 이러한 때에 엥겔스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주하고 뛰쳐 나왔던 부친의 상사에 서슴없이 다시 들어 가는 길을 택함으로써 맑스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였다.

혁명의 원쑤들과 각종 기회주의자들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맑스로부터 엥겔스를 떼 내려고 책동하였으나 그것은 엥겔스로 하여금 맑스에 대한 의리를 지켜 벗으로서의, 전우, 방조자로서의 립장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을 뿐이다.

엥겔스는 맑스가 돌아 가신 뒤 그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대의 정력을 기울였으며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였다.

엥겔스는 63 세의 고령에 맑스가 집필하다 채 끝맺지 못 한 《자본론》 초고를 정리하고 추고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는 자기의 여생에 이 사업을 마치지 못 하지나 않을가 봐 못내 근심하였다. 그는 자신이 쓰려고 계획했던 모든 저술 사업들을 뒤로 미루어 놓고 이 사업을 추진시켰다. 년로한 그에게 있어서 이 사업은 몹시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이였지만 그는 이것을 《다시 옛 친구를 상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였고 《가장 고귀한 과학적 향락의 원천》으로 간주하면서 끝내 마치고야 말았다.

엥겔스는 또한 자기에 대한 모든 찬사와 높은 평가를 언제나 맑스에게 돌렸다. 엥겔스는 1893년 제 2 인터나쇼날 제 3 차 대회에 참가하여 폐회사를 하였다. 이 때 그는 대회 참가자들이 그에게 표시한 열렬한 환대에 대하여 자기를 《저 편에 그 초상이 걸려 있는 위대한 인물의 협조자로》 수락할 것을 요청하면서 모든 찬사를 맑스에게로 돌리였다.

맑스, 엥겔스에게서와 같은 두터운 동지애와 의리는 레닌에게 있어서도 찾

아 볼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충실한 제자인 레닌은 그들을 무한히 존경하였으며 그들의 혁명 위업을 훌륭히 계승 발전시켰다.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위하고 그들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공산주의자의 량심으로, 혁명 선배에 대한 의리로 간주하였다.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를 배반한 제 2 인터나쇼날의 수정주의자들과 각종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현실과 제국주의 시대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함으로써 맑스와 엥겔스에 대한 의리를 다하였다.

레닌에 대한 쓰딸린의 충실성에서도 혁명적 의리, 동지애의 모범을 찾아 볼 수 있다.

쓰딸린은 레닌의 친근한 제자이며 전우이며 그의 위업의 직접적 계승자였다.

쓰딸린은 레닌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물론 레닌이 돌아 가신 뒤에도 뜨로쯔끼파, 부하린파,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형형색색의 공격으로부터 레닌의 사상을 철저히 고수하였고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농업 집단화와 공업화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레닌적 로선을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쓰딸린은 쏘베트 인민을 레닌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의 위업을 계승하는 것을 자기의 첫째 가는 의무로 간주하였다.

그는 1925년 1월 21일 부 《라보챠야 가제따》 제 17 호에 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억하라, 사랑하라, 연구하라 우리들의 스승, 우리들의 령도자 레닌을.

내외의 적들을 싸워 이기라—레닌 식으로.

새 생활, 새 풍습, 새 문화를 건설하라—레닌 식으로.

사소한 일이라 해서 결코 거부하지 말라, 사소한 것으로부터 위대한 것이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이것이 레닌의 중요한 유훈의 하나인 것이다.》

쓰딸린은 언제나 레닌을 우러러 받들었으며 그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최대의 영예로 간주하였다. 그는 1931년 12월 13일에 있은 독일 작가 에밀 루드위히와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로 말하면 나는 레닌의 제자일 따름으로, 나의 일생의 목적은 그의 훌륭한 제자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레닌에 대한 쓰딸린의 존경과 사랑은 극진하였고 무조건적인 것이였다.

이러한 고상한 풍모들이 맑스와 엥겔스, 레닌과 쓰딸린의 혁명 동지와 전우에 대한, 혁명 선배에 대한 태도이며 관계였다.

우리의 항일 빨찌산들도 바로 그러한 생활 풍모를 가지고 살았다.

항일 빨찌산들은 하나의 목적과, 같은 사상으로 굳게 결합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뜨거운 동지 우애심으로 친형제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빨찌산들에게 있어서는 혁명 사업이나 동지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간주되였다.

항일 투사 마 동희 동지는 일제 군경

놈들에게 체포되여 극악무도한 취조와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혁명적 지조를 지켜 싸웠다. 그는 오직 자기가 고문 끝에 혹시 정신을 잃고 헛소리로라도 혁명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동지들의 이름을 불러 《배신 행위》를 하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일 걱정하였다. 그리 하여 그는 자신의 혀를 깨물어 끊을 것을 결심하였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무서운 고통까지도 견디여 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의리인가!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의리는 특히 자기들의 지도자이며 어버이며 벗인 김 일성 동지에게 바친 열렬한 사랑과 존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 일성 동지에게 바친 빨찌산들의 사랑의 감정은 수다한 이야기들로써 알려져 있다. 불굴의 혁명 투사 권 영벽 동지의 다음과 같은 말은 빨찌산들 모두의 심정을 표현한 실례의 하나이다. 《나를 낳아 준 조국은 어머니이고 혁명 전선에서 나를 가르쳐 주고 길러 준 사장 동지(김 일성 동지를 가리킴—인용자 주)는 나의 스승이며 어버이이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는 불효자이며 용납 못 할 죄인이다. 나는 둘도 없는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리라.》 권 영벽 동지는 또한 공작원들과 군중들 앞에 나서면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하군 하였다: 《김 일성 장군이 계시는 사령부는 조선을 독립시키는 혁명의 심장이요. 우리는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 그를 받들며 철석 같이 보위하여야 하오. 이 정신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목숨을 바쳐 고수하여야 하오.》 그는 혁명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심장 속에 아로새긴 이 맹세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적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는 순간까지도 그 맹세에 충실하였다.

혁명 동지와 혁명 선배,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이러한 혁명적 의리는 공산주의자들, 우리의 항일 빨찌산들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품성으로 되고 있었다.

* *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는 공산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싸웠으며 싸우고 있는 모든 혁명 투사들, 혁명 군중들에게 돌려지는 무한히 넓고 무한히 깊은 사랑과 배려의 도덕적 감정이다.

의리를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혁명 선렬들, 혁명 선배들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

혁명 선렬들, 선배들은 오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피압박 대중의 영원한 해방을 위하여,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한 분들이다. 또한 그들은 어제'날까지도 우리의 대오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면서 투쟁하던 분들이다.

그들이 있었음으로 하여, 그들의 피의 투쟁이 있었음으로 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사업이 있으며 우리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혁명 선렬들에 대한 경건한 추억, 존경과 사랑—이것은 공산주의적 의리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다.

혁명 선렬들이 하던 일을 그 대로 넘겨 받고 그들이 걸던 길을 그 대로 걸어 가며 그 위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

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 절개이다.

선렬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떠나서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항일 빨찌산 선렬들과 조국 해방 전쟁에서 희생된 선렬들의 투쟁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을 추억하며 배우며 그들처럼 투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은 우리 투쟁의 귀중한 밑천으로, 힘으로, 등대로 되고 있다. 그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그 전통이 주는 힘으로 하여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었던가!

사람들이 혁명 선렬들, 선배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의 정을 느끼고 적극 배우기에 힘쓰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나 매개 나라의 혁명 운동에 있어서나 선렬들의 투쟁, 그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제쳐 놓고 오늘의 운동, 오늘의 승리에 대하여 말하는 수정주의자들의 행동은 심히 그릇된 것이다.

만일 혁명 선렬들이 이미 계시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이 이룩한 전통을 거부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건 내뱉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그들이 하던 운동—혁명 운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복수로 갚는 배은 망덕으로 될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인민적 격언도 있거니와 원래 뒤'시비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개적인 당성과는 인연이 없다. 혁명 선렬들이 투쟁 대오에 있을 때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다가 이미 대오에 없게 되자 그 어떤 《개인 미신 반대》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 대면서 그들의 투쟁 업적과 전통을 없애치우며 한다면 이것은 철저한 패덕 분자의 행동으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래일의 락을 위하여, 전 세계 피압박 대중의 해방의 날을 위하여 오늘의 모든 고통, 오늘의 갖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투쟁하는 것이다. 만일 오늘의 이 투쟁이 래일에 가서 헌신짝처럼 저버려지리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혁명 운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선렬들의 투쟁 정신과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특히 자라 나는 새 세대들에게 과거 투쟁에 대한 허무주의를 고취하며 그들을 선렬도, 선배도 몰라 보는 무뢰한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향락에만 몰두하고 인류의 광명한 래일을 위하여 투쟁할 줄 모르는 속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우리는 의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동을 철저히 배격하며, 공산주의자들의 행동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으로 규탄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 선렬들, 선배들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킴으로써만 사람들을 혁명 정신으로 옳게 무장시킬 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할 수 있다.

혁명적 의리는 또한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그를 보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혁명의 령도 핵심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오랜 혁명 투쟁 행정에서, 그 투쟁 자체의 요구에 의하여, 그 투쟁

력량 속에서 배출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혁명의 령도 핵심은 인민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가장 헌신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고 용감하게 투쟁한 사람들이며, 힘과 지혜와 생활의 모든 것을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바친 사람들이다.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충성은 혁명 군중의 마음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동지애와 의리의 표현으로 된다. 이것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며 그 누가 막아 버릴 수도 없는 고귀한 감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령도 핵심을 깊이 믿고 지지하며 그 앞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이와 배치되는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혁명에서 령도 핵심의 결여는 그 운동의 혼란과 파산을 면할 수 없게 한다.

우리는 자체의 혁명 력사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를 통하여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1920 년대에 우리 혁명은 그 지도부에 종파'군들과 각종 기회주의자들이 기여 들었던 탓으로 하여 얼마나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하였던가.

또한 제 2 인터나쇼날 시기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혁명의 위대한 령수인 엥겔스의 서거 이후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따위의 기회주의자들에게 령도권을 탈취 당하여 얼마나 간고한 시련을 겪었던가.

오늘에 있어서도 유고슬라비야와 같은 나라에서는 찌또의 썩은 무리가 지도부를 타고 앉은 것으로 하여 혁명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이 엄연한 력사의 교훈에서 외면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개인 미신 반대》의 감투를 갖고 돌아 다니면서 음모와 사기의 방법으로 혁명의 령도 핵심을 허물어 버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은 가장 배신적인 행동이며 위험하기 그지 없는 행동이다.

만일 혁명의 령도 핵심이 어떤 음모적 방법에 의하여 제거된다면 이것은 그들을 중심으로 단결되였던 전체 혁명 대오의 정연한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며, 혁명 운동에서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려던 혁명 군중의 심리에 가혹한 상처를 주며, 사람들을 서로 경원하게 만드는 결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혁명의 령도 핵심과 대중, 당과 대중과의 관계를 범연한 관계로, 아무렇게나 대하는 관계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공산주의 운동을 사분오렬시키는 데로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간고한 투쟁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당의 정책이 허수아비의 주먹 놀음처럼 무맥한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사기 행위를 철저히 폭로 비판하며 저지시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이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대오들은 오직 자체의 령도 핵심을 굳건히 보위함으로써만 당의 통일 단결, 전체 혁명 대오의 통일 단결을 보존 공고화할 수 있으며 정확한 령도를 보장 받으면서

성과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그것이 국경이 없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자기 나라 인민 대중의 리익이 귀중한 만큼 모든 나라 피착취 대중의 리익이 귀중한 것이며 또한 각국 인민들의 원쑤는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들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제 로동 계급과 피착취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피로써 국제 혁명을 지원할 각오로·준비되여 있는 것이다.

국제주의—그것은 다름 아닌 국제적 범위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의리이며 동지애이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국제주의적 의리에 충실하였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일제의 쏘련 침공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쏘베트 군대는 우리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싸웠다.

우리는 또한 과거에 중국 땅에서 중국 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조중 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웠고 또 중국의 아들딸들은 우리 조국의 해방 전쟁 시기에 조선 땅에서 피흘려 싸웠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싸운 쏘 중 인민의 아들딸들을 길이 추억하는 것을 응당한 의리로 간주한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지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착취자들의 압제 밑에 신음하는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언제나 떨쳐 나설 각오가 되여 있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국제 혁명에 대한 지지 성원은 결코 그 어떤 보답을 바라거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국제적 지원을 부담으로 간주하거나 그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벌써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와는 거리가 먼 계산 관계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지원을 주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노린다면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행동을 방불케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의 기성된 권위를 리용하여 자신을 남의 어깨 우에, 머리 우에 올려 세우려 하며 극도의 거만을 부리는데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행동이다. 남이 자신을 평가할수록 자신이 더 어깨를 낮추고 허심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원래 동지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국제주의적 원칙에서 국제적 혁명 동지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며 존중하고 배려하며 호상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는 혁명의 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의 정신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 지주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 대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착취자들과 반동파들에 대한 증오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로동 계급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큰 사람일 것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람은 반드시

착취자들에 대한 증오가 클 수 밖에 없다.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기는커녕 그들과 극력 야합하며,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기는커녕 제국주의라는 말조차 하기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공산주의적 의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 동지와 계급적 원쑤를 갈라 보지 못 하는가 하면 지어 바꾸어 놓으려는 데까지 이르러 제국주의는 《평화 옹호자》로 보고 반제 투쟁의 립장에 선 나라들은 《랭전의 고취자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리성》, 《신뢰》, 《양보》, 《친선》에 대하여 말하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말로 말하며 원쑤처럼 대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어떻게 의리, 동지애를 찾아 볼 수 있겠는가?

결국 혁명적 의리의 문제는 단순한 《인정》 세태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넓고 깊은 로동 계급의 근본적인 립장의 문제인 것이다.

혁명적 의리, 혁명적 동지애가 결여된 사람들은 례외 없이 혁명에 대한 배반자로 되며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에서 탈락 분자로, 기회주의자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에는 엄중한 손실로 되며 제국주의와 반동들에게는 리득으로 된다.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는 이것을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혁명적 의리, 혁명적 동지애를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이에 배치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배격하는 립장을 취하여야 한다.

혁명적 의리는 결코 아무런 비판도 없이 무원칙하게 누구를 추어 주고 받들어 주며 맹종맹동하는 것이 아니다. 의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호상 배려하는 것이며 또 따라서 모든 비원칙적인 행동들을 철저히 비판하고 제거함으로써 공고화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립장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 내에 나타난 비의리적인, 비동지적 립장을 폭로 비판해야 한다고 간주하며 그것을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적 동지애의 립장에 기초하여 실현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 대렬 내에 나타난 부패 타락한 오물을 가시여 버림으로써 자기 고유의 아름다운 지조와 의리로서 순결해지고 굳건해질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의 강화의 길이며 발전의 길이다.

우리는 그 강화되고 발전된 력량에 의거함으로써 배가된 힘으로 매개 나라에서, 세계적 규모에서 공산주의의 종국적인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결합

박 전, 허 재 억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밀접히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 특히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 운동의 발생, 발전은 이 원칙의 구현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오늘 이 원칙의 관철 과정에서 우리 당이 쌓은 성과와 경험을 연구하고 전개하는 것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원칙과 그 구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가일층 풍부화한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경험으로 무장하는 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에서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결합하는 우리 당의 원칙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오늘 실천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오늘 인민 경제 매개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신과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고 종업원 1 인 당 생산량을 높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에로 근로자들을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문제 등이 모두 우리 당의 이 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　　*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확고한 방침은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를 보장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한다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 중에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우리 당의 이 방침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인류 력사 상 처음으로 근로 대중을 온갖 착취에서 해방하고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자들 개인의 리익과 전체 사회의 리익을 완전히 통일시켰으며 또한 근로자들의 로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은 바로 사회주의가 가져 온 이러한 세기적 변혁에 그 기초를 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는 모든 선진적인 새로운 생산 관계가 그러한 바와 같이 선행한 생산 관계 하에서보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훨씬 제고시킨다. 근로자들의 로동이 착취에서 해방되고 그 결과가 직접 근로자들 자신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이 자본주의 하에서보다 훨씬 높아진다. 이것도 역시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중요한 우월성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우월성은 근로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로동에 참가한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 데 있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이 우월성, 사회주의 제도의 이 본질적 우월성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로동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개조케 하는 정치 도덕적 자극에 의하여서만 발휘될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 리해 관계만 따지게 하고 《돈벌이》를 위하여서만 일하게 한다면 그들이 결코 서로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을 발휘할 수도 없을 것은 명백하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당 정책 교양, 혁명 전통 교양, 공산주의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 가장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바로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훌륭히 발휘시켰으며 생산력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천리마적 대진군, 근로자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대중적인 로력적 앙양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회를 위하여 일하려는 근로 대중의 고상한 사상

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성을 보장하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의 첫 시기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근로 대중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키우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대책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첫 시기로부터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변혁이 가져다 준 정열과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는 자각으로부터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배출된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 혁명 이후 첫 시기에는 아직 크지 않은 싹에 불과하지만 당면한 새 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나,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나 아주 귀중한 싹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첫 시기에 나온 무보수 토요 로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키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시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상히 큰 중요성을 가진 시초이다. 이것은 부르죠아지의 전복보다도 일층 더 곤난하고 일층 더 본질적이고 일층 더 근본적이고 일층 더 결정적인 변혁의 시초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보수성, 무규률성, 소부르죠아적 리기주의에 대한 승리이며 저주할 자본주의가 로동자와 농민에게 유산으로 남겨 놓은 이 습성들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이다. 이 승리가 공고화될 때에는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새로운 사회적 규률, 사회주의적 규률이 수립될 것이며 그 때에는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뒤로의, 자본주의에로의 복귀는 불가능하게 되고 공산주의는 참으로 불패의 것으로 될 것이다.》(전집 제 29 권, 490 페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발현되는 이러한 새 싹은 그것을 키워 주는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수단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는 자래울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낡은 사상 잔재 특히는 수 세대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 온 뿌리 깊은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남아 있게 되는바 이것은 자라나는 공산주의적 새 싹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낡은 사상의 저항이 있는 조건에서 만일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약화시키거나 그것과 분리하여 물질적 자극만을 강화한다면 근로자들의 로동에서 새로 자라 나는 공산주의적 싹은 사멸되고 말 것이다. 물질적 자극이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 개인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되는 충동을 리용하는 공간이니 만큼 정치 도덕적 자극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조장하게 될 수 있으며 물질적 리해 관계만 따지는 속물적 근성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중적 로력적 앙양, 로동에서의 대중적 영웅주의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정치 도덕적 자극과 분리시켜 물질적 자극 일면만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과 모순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성을 보장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한다는 것은 결코 물질적 자극을 약화시켜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만을 강화하고 물질적 자극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객관적 법칙에 모순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이 있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의 생산력이 아직 근로자들에게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으리 만큼 발전되여 있지 못하며 근로자들의 로동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남아 있고 그들이 아직은 무보수 로동에 습관되여 있지 못 하며 근로자들의 머리 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는 등의 제반 객관적 사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무시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물론 정치 사업,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이 보다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식 수준이 낮은 층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할 수 없으며 그들의 앙양되는 로력적 열의를 장구한 기간 계속 견지하게 할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많은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고 그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지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물질적 배려를 더 많이 돌려 보다 높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들의 열성과 적극성을 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정치 도덕적 자극과 결합되는 조건 하에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또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수단으로도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곧 한 개의 훌륭한 공산주의 교양 방법으로 된다.》(《당 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 것이다》)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는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붙어 먹으려는 자들을 통제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에 인입하며 근로자들 속에 로동을 애호하고 존중하는 근로 정신을 배양하며 또한 로동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교양 개조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도 물질적 자극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교양하는 정치 도덕적 자극을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이 정치 도덕적 자극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할 데 대한 우리 당

의 방침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튼튼히 기초하여 또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력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케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　＊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하는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의 조건과 매개 부문의 특성에 맞는 물질적 자극의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다.

물질적 자극의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결합할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물질적 자극의 형태의 정확성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물질적 자극의 형태가 될 수 있는 대로 매개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인의 로동의 량과 질에 철저히 준하여 그에게 분배 몫이 돌아 가도록 설정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 당면 및 전망 과업,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문화 생활 수준, 인민 경제 개별적 부문의 특성 등에 적응하게 물질적 자극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를 설정하고 그것을 관철하여 왔다.

국가 기업소들에서 적용된 도급 로임제와 추가적인 로임 형태로서의 상금제, 협동 농장들에서의 로력일에 의한 분배 등을 통하여 당은 인민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제 조건들에 적응하게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였으며 그리 하여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밀접히 결합시켜 왔다.

물질적 자극의 이러한 제 형태들은 개인들에게 차례지는 분배 몫이 자기가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일'군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휘케 하였다.

우리 나라의 실천적 경험은 물질적 자극의 모든 형태들 중에서 특히 개인 도급제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형태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개인 도급제는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가장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며 일'군들의 생산 열의를 가장 훌륭히 높여 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개인 도급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 도급제도 물질적 자극의 다른 모든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만, 그것과 철저히 결합되는 조건 하에서만 근로자들의 생산 열의를 높여 주는 훌륭한 형태로 될 수 있다. 특히 개인 도급제를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 그것이 정치 도덕적 자극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요소들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개인 도급제가 도입되고 있는 인민 경제 매개 부문들에서는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면서 작업반 증산 절약 상금제와 같은 추가적 지불 제도를 적용케 함으로써 개인 도급제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는 창조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업반 증산 절약 상금제는 작업반에 부과된 생산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작업반 전체 성원들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동지적 협조 관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실은 개인 도급제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치 도덕적 자극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물질적 자극의 추가적 형태들을 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도급제는 어디까지나 개별 일'군들의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

사실 사회주의 건설의 현시기 인민 경제의 개별적 부문들을 본다면 생산의 최종 결과를 매 개인 별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개인 도급제가 도입될 수 없거나 또는 도입되는 경우에도 큰 성과가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분배 형태들—협동 농장에서의 작업반 우대제, 국영 기업소들(채취, 림업, 염전, 천해 양식 등)에서의 작업반 우대제, 국영 목장들에서의 작업반 독립 채산제 및 작업반 상금제, 건설 부문에서의 현물 평가제 등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단계의 요구에 적합한 가장 적극적인 물질적 자극의 형태들이다.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이 새로운 형태들은 적용되는 령역에 따라서 일정한 특수성을 가지나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생산의 최종 성과와 직접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그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부문들에서는 새로운 분배 형태가 도입됨으로써 분배가 더욱더 개별적 일'군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철저히 의거하여 실현된다. 말하자면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해 주는 원칙이 더 잘 관철되는 것이다. 여기에 물질적 자극의 새로운 형태들이 가지는 근본적 우월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배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우월성의 하나는 전체 집단을 **공동적으로**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킨다는 데 있다.

그것은 이러한 새로운 분배 형태들이 근로자들의 물질적 리해 관계를 우선 집단의 생산 계획 수행 정도에 의존되게 하며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완전한 통일을 생산의 최소 단위에서 가장 명백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리 하여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새로운 형태들은 일'군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하며 앞선 사람은 계속 전진하면서 뒤떨어진 사람을 끌어 올림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의 앙양을 달성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생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개인 리기주의적 편향을 근절시키며 동지적 원조와 협조를 강화하며 대중적인 지혜와 창발성을 고도로 발휘케 한다. 이것은 개인적 로동의 단순한 총화에 비할 바 없는 새로운 사회적 힘을 산생케 하며 생산 발전을 강력히 추진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작업반이 고정된 생산 단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의 거점으로 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물질적 자극의 이 새로운 형태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기치 하에 작업반 전체 성원들을 묶어 세우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를 보장하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하여 온 우리 당의 경험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국가 계획 지표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계획을 수행했는가 못 했는가, 계획을 수행하였다면 어느 정도로 수행하였는가 하는 데 따라 집단 또는 개인들의 물질적 보수에서 일정한 등차를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관심을 우선 국가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에 집중시켜 왔다.

이것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생산의 매개 환절에서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 담보로 되며 특히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국가적 및 사회적 의무 수행에로 자극함으로써 물질적 자극을 정치 도덕적 자극과 더 잘 결합될 수 있게 하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를 국가 계획 과제 수행 정도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성격과 배치되며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하에서의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합목적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된다.

만약 근로자들이 될수록 낮은 계획을 받으려 하는 현상이 발로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약화시킨 결과이며 정치 도덕적 자극과 분리시켜 물질적 자극만을 강화한 결과이다.

우리의 경험은 정치 도덕적 자극이 선행되는 조건에서는 근로자들의 관심을 국가 계획 수행에 집중시키는 것이 그들의 적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에서 보다 높은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케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은 다같이 생산자 대중과의 사업에 관한 문제이며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 생산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의 밀접한 결합은 당의 령도와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통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당과 국가의 경제 관리 지도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강화할 데 대한 원칙적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생산에 대한 관리 체계와 방법이 소여 시기의 구체적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최대한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일 때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 있게 추진하는 무기로 될 수 있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원칙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확립된 새로운 관리 체계는 그 자체가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확고히 하는 당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당 위원회의 령도 체계의 확립, 집체적 령도의 강화는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철저히 선행할 수 있게 하며 당 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의 활동을 강화케 함으로써 생산자 대중을 당이 제시한 혁명 과업 수행에로 한결같이 동원시킬 수 있게 한다.

특히 새 체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공장 관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공장의 관리 운영에서 그들의 열성과 책임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며 로동 과정에서 일'군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창발성과 헌신성을 제고케 한다.

이리 하여 대중을 보다 목적 의식적인 투쟁에로, 보다 자각적인 투쟁에로 이끌어 주는 새 사업 체계는 집단적 혁신 운동과 기술 혁명의 불'길을 더욱 앙양시킬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사업 체계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체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단결시키며 그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기 때문에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는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며 그것을 정치 도덕적 자극에 더 잘 안받침하여 줄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 체계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집단적인 생산 계획의 수행에로 추동한다는 데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발전되고 있는 자체 정량 사업, 반 도급제에서의 점수에 의한 분배 방법, 상금제, 내부 채산제 등은 변천된 현실에 적응하게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작업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며 작업 결과의 평가, 분배를 매개 근로자들이 투하한 로동의 량과 질, 그들의 국가 계획 수행 정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가장 정확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새 체계 하에서 광범히 도입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실현하는 새로운 제 형태들은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정확히 결합시킴으로써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 사상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관리 지도 체계는 두 자극의 결합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을 가장 잘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오늘 새로운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며 특히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관철시키는 것은 다른 모든 사업과 함께 로동 행정 사업,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교양, 당 정책 교양을 심화시키는 문제나 또한 근로자들의 로동 기준량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작업 평가를 잘 하여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나 다같이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관철시키는 것과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직접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업인 로동 행정 사업을 완전히 청산리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더욱 높이는 데서 가장 선차적 문제로 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밀접히 결합시켜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에 가일층의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 배치의 균형 문제

림 계 수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김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도시의 발전에 농촌을 따라 세우며 앞으로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를 점차 축소시켜 나갈 데 대한 기본 과업들이 제시되여 있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에 대한 문제는 테제에서 제시된 이러한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 전 사회적 로동력의 합리적 리용과 직접 관련되여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련결되여 있기 때문이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는 무엇보다도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과 전반적인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생산에 참가하는 제반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소인 로동력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은 로동력이야말로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력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정확한 배치 없이는 생산 수단의 합리적인 리용과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로동력은 전 사회적 로력 자원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 두 부문 간의 로력 류동은 전 사회적 로력 류동의 기본 조류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민 경제 발전의 매 단계마다 도달된 생산력 수준과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 그리고 나라의 생산 구조와 거기에서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업과 농업 간에 로동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때만이 이 두 부문 간의 균형적인 발전도,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에서는 농촌 로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았으며 인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훨씬 뒤떨어져 있었던 나라들에서 특히 절실한 문제로 제

기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락후하였던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업에 농촌 로력을 인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많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일정한 시기까지는 아직 농업 로동의 적지 않은 부분이 수공업적인 손로동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하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비교적 오랜 기간을 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 로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 한다면 농업의 발전을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우지 못하고 결국 공업 자체와 인민 경제 전반의 가일층의 발전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는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적 로력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함에 있어서 또한 큰 의의를 가진다.

전 사회적 규모에서 사회의 물질적 및 로력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우월성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당과 국가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타산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는 이 우월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좌우하는 이 두 부문에서의 사회적 로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사회적 로력 자원의 최대한의 동원과 합리적인 리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로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수행하고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전망적인 과업의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명시되여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의거하여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실현하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

그런데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잘 하자면 무엇보다도 농촌에 그것을 담당하여야 할 력량을 잘 꾸려야 하며 당의 농촌 진지를 공고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당과 정부의 계획적이며 의식적인 조치에 의하여 실현된다.

공업과 농업 간에 로동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당의 농촌 진지를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도시와 농촌,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케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시종일관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당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력사적 특성과 혁명 발전의 매 시기 제기되는 현실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 나갔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은 우선 경제 건설의 매 시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에 필요한 로동력의 량적 수요를 옳게 타산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나라의 생산력 발전 정도, 로동 조직과 생산 조직의 완성 정도에 따라 공업과 농업에서의 로동력의 수요는 각이한 시기에 각이하게 제기된다. 나라의 공업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에서 개인농 경리가 지배하던 시기와 공업화의 토대가 축성되고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시기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의 로동력 수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경제 발전의 매 시기 공업과 농업에서의 로동력에 대한 량적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는 것은 이 두 부문 간의 로동력을 균형적으로 조절 배치함에 있어서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

당은 공업과 농업에서 요구되는 로동력의 량적 수요와 함께 그 질적 구성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을 발전시킨 과거 사회의 후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 공업 로동력과 농업 로동력의 질적 구성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을 수 없다. 공업과 농업 부문 로동력 구성에서의 질적 차이는 로동 계급에 비하여 농민들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이 낮으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에 기술, 기능 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농촌에는 청장년 로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에서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 조건이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방침을 수립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 두 개 측면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그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공업과 농업 간의 로력 배치의 균형 문제 해결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방침은 우선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을 조절 배치하는 것이였다.

공업은 인민 경제의 기타 모든 부문에 대하여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부문의 발전에 필요한 생산 수단을 공급한다.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공업의 발전을 다른 모든 부문의 발전에 앞세워야 한다. 공업의 우선적 발전, 그 기술 수준의 제고는 공업이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역할을 놀 수 있게 하는 기본 담보이다.

이로부터 공업과 농업 간에 로동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함에 있어서는 공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로동력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력을 동시에 풀어 나가는 원칙을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로동력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하여 또한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며 그 대렬의 질적 구성을 부단히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당의 이 방침은 농업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농민들로 하여금 기술 기능과 문화 수준을 높이고 선진 영농 과학을 습득케 함으로써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농업 생산력을 부단히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이다.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그 대렬의 질적 구성을 강화하는 것은 농촌 로력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고리이며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 당은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였다.

로동 계급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고 당의 농촌 진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더우기 산지대가 많고 논 농사가 위주로 되여 있으며 집약적 영농 방법이 기본으로 되여 있는 우리 나라 조건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에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로력자들이 들어 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은 고도로 집약화되여 있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장시일을 요한다. 우리의 농촌 로력에서는 아직도 로인들과 녀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청장년 로력을 더욱 보충하여 주며 농촌에 대한 사회적 로력 방조를 더 계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테제)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로력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등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로력을 적극 절약하여 농촌에 더 많은 로동 계급의 핵심들을 파견하며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로력 협조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데 일관한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농촌 진지를 공고화하며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따라 세우며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이러한 모든 방침을 견지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경제 건설의 매 시기마다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다. 당은 혁명 발전의 서로 다른 시기에 제기되는 각이한 과업과 조

건들을 정확하게 타산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매 시기 이 두 부문 간의 로동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절 배치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이 빠른 속도로 복구되고 로동력에 대한 공업의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던 과도기 첫 시기에 당은 로동력 배치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 보장을 위하여 우선 아직 농촌에 잠재하고 있었던 과잉 로력을 공업 부문에 조직적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과도기 첫 시기에 실시한 우리 당의 이 조치는 당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였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 공업 부문 앞에는 일제의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하루 속히 퇴치하고 점차 자립적 공업 토대를 확립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 있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공업에서는 로동력을 절대적으로 급격히 증대시킬 것이 요구되였다. 다른 한편 일제 통치의 결과 증대되였던 농촌의 과잉 로동력은 토지 개혁 이후 현저히 축소되였으나 아직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

당은 이러한 형편에서 농촌으로부터 공업에로 로동력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인입함으로써 로동력 배치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였다.

이것은 과도기 첫 시기 공업에서 요구되였던 로력 문제를 최단 기간 내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시기에 존재하였던 농촌의 잠재적 과잉 로력을 최대한 축소시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 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였던 전쟁의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혹심하게 파괴되였고 로동력이 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구성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공업 부문 로력 구성에서 숙련 로동자들의 비중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감소되였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청장년 로력이 극히 부족하였으며 농사'일의 대부분이 녀성들과 로인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서 로동력 문제는 공업에서나 농업에서나 다같이 절실하였다.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로력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공업의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 축성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면서 농촌에서 협동화를 통하여 긴장된 로력 문제를 풀었다.

이것은 전후 시기 공업과 농업에 조성되였던 구체적 실정에서 이 두 부문에서 다같이 긴절하였던 로동력 문제를 동시에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또한 전후 공업과 농업의 복구 발전에 필요한 로력 문제를 푸는 사업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면서 이 과업들의 급속한 수행에도 적극적 작용을 놀았다.

우리 당은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면서 협동화 운동을 통하여 긴장된 로력 문제를 푸는 한편 공업의 기초가 축성되는 차제로 점차 농촌에 대한 도시의 물질 기술적, 로력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심중한 주목을 돌려 왔다.

당은 전후 곤난한 조건 하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농촌의 대규모 관개 공사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적극 진행하였으며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와 농기구를 생산 공급하여 주었으며 특히 농촌에서 로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결정적 시기에 사회적 로력 협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되고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에 따라 농촌에 대한 이러한 국가적 지원의 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다 폭 넓게 실시하였다. 당은 농촌에서 부족되는 로동력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촌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공업 부문에서 집단적인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공업 자체의 로동력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로력적 지원을 더욱더 많이 줄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농촌을 적극 지원하며 농촌 출신의 초중 및 기술 학교 졸업생들을 농촌에 고착시키며 군대에서 제대되는 청장년 로력들을 농촌에 더 많이 파견하며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그리 하여 전후 10 년(1954~1963)간에 우리 나라 농촌 로력 구성에서 남성 로력의 비중은 5% 이상이나 더 제고되였으며 그에 따라 청장년 로력의 비중이 훨씬 더 증대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촉진됨으로써 이 기간에 절약된 농촌 로력만 하여도 매년 평균 1,840여만 공수에 달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이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긴장된 문제의 하나였던 로동력에 대한 공업과 농업의 수요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두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는 것을 증시해 주고 있다.

* *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특히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농촌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킬 보람찬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공업과 농업 간에 로동력을 보다 균형적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조절 배치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하여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농촌 로력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축성되고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와서도 우리 나라 농촌에서 로력 형편은 계속 긴장되여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농촌 경리 부문 앞에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에 적응하게 농업 생산을 더욱더 증대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모든 협동 농장들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할 방대한 과업이 부과되여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은 지금 진행 도상에 있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급속히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농촌은 또한 경제 관리 특히 로동 행정 사업 분야에서 공업에 비하여 적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아직 상당한 기간 로력 확보 사업이 계속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로력 문제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고 화학화해서 적은 로력을 가지고 헐하게 농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계속 농촌에 많은 로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촌 로력 확보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김 일성, 《농촌 경리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하여》)

현시기 농촌 로력을 증가시키며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결정적 고리는 농촌 지원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더욱 강력히 전개하며 전반적인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농민들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전 당'적, 전 인민적 사업이다.

현실은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공업 건설에 필요한 로력을 일정한 정도로 농촌에서 뽑아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면 공업화의 토대가 축성된 오늘에 와서는 공장이 농촌을 물질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로력적으로도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의 농촌 진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도시의 발전에 농촌을 따라 세울 데 대한 과업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로력을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농촌에 더 많은 로동 계급의 핵심들과 청장년들, 우수한 로력자들을 들여 보내야 한다. 농촌의 로력자 대렬을 대대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사업과 동시에 농촌에 대한 사회적 로력 협조를 계획적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데 또한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현시기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와 합리적인 리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과 함께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로동 행정 사업의 강화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력의 합리적 배치와 로동력의 절약적인 리용을 통하여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자 1 인당 생산량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담보의 하나로 된다. 더우기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로력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해마다 수 많은 로력자 대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농촌 로동 행정 사업

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우선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며 농업 로동력의 질적 구성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농촌 로력을 인민 경제의 기타 부문에 빼 돌리는 현상을 극력 제한하여야 하며 농민들 속에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다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지식을 소유케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내부 로력과 지원 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절 배치하며 로력 조직 사업과 관리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협동 농장들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에는 건장한 청년들을, 헐하고 쉬운 일에는 녀성들과 허약자들을 배치하며 농장의 기본 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하는 원칙에서 모든 농장원들을 그들의 성별, 년령, 체질, 기능 등 특성에 맞게 정확히 배치하며 로력 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로력의 랑비 현상을 없애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에서 로동력의 랑비와 류동이 없도록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하며 작업 정량을 정확히 설정하며 로력 관리와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잘 실시하도록 농촌 로동 행정 사업 전반을 틀어 쥐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인 로동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백방으로 제고하고 로력 예비를 적극 탐구해 내여야 한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로동 행정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이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로동 행정 기관들의 지도와 감독 기능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 행정 기관들이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 원천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나라의 경제 및 기술 발전에 상응하게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 배치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로동 행정 기관들은 국가의 전반적 로동 계획 작성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고 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로력의 류동과 랑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우리 나라 현 실정에 맞게 부문들 간의 로력 배치의 비례를 정확히 설정하고 모든 부문에서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일'군들의 비중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이 다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다같이 번영하고 있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특히는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 배치에서의 균형 보장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증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공업과 농업 간의 로동력 배치에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전반적인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할 때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될 것이다.

남조선에 침습하고 있는 《왜색》, 《왜풍》

김 연 성

해방 후 19 년 동안이나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 여지 없이 파괴 몰락된 남조선 사회 문화 생활은 오늘 《왜색》, 《왜풍》의 침습으로 더욱 수습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침습하고 있는 《왜색》, 《왜풍》은 반동적 일본 부르죠아 문화와 부패한 생활 양식이다.

일제는 《한 일 친선》이니, 《경제 협조》니 하는 간판을 들고 최근 시기 남조선에 대한 침투 기도를 로골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는 일제의 침략적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명목의 사절단들이 매일과 같이 기여 들고 있으며 이들은 각 방면에 걸쳐 자기들의 침략적 지반을 구축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에 오늘 남조선에는 일제의 해외 팽창의 선봉대로 복무하는 반동적 종교 단체들을 비롯해서 인민들 속에 숭일 사상과 일본의 부르죠아 생활 양식을 부식하는 퇴폐적인 영화와 출판물, 음악, 문예 작품들이 급속히 밀려 들고 있다.

《왜색》,《왜풍》의 급속한 범람은 오늘의 남조선 현실로 하여금 과거 일제의 식민지 통치 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자기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를 유린 당하던 근 40 년 간에 걸치는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는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하다.

일제는 근 40 년 간 우리 인민에게 빈궁과 기아의 처참한 생활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빛나는 문화 전통과 생활 양식을 파괴 말살하는 데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었다. 그들은 저어 《동조 동근론》, 《황국 신민화》를 떠벌리면서 이른바 반동적 《대화혼》을 강제적으로 주입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 성까지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자기의 성, 모국어를 쓰는 것마저 막아 보려 하였다.

해방 후 남조선에서 민족 문화는 일제에 의한 치욕의 흔적을 가시지 못한 채 또다시 미제에 유린 당하게 되였고 민족의 고유한 미풍 량속은 여지 없이 파괴 당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사실상 민족 문화의 발전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 부패한 부르죠아 문화와 생활 양식의 침식으로 민족 주체 의식은 차츰 말살되고 허무주의와 염세 기분이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투가 예속된 나라 인민들의 생활을 헤여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 넣으며 민족의 존망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략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민족적인 전통과 민족 주체 사상의 완전한 말살을 목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 속에 저들에 대한 순종과 굴종의 사상을 고취하고 타국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길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책동은 흔히 《원조》와 《친선》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진행된다. 과거 일제가 조선을 강점할 당시 그렇게 하였고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어떠한 구실로 기여 들든지 간에 철두철미 침략과 략탈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결코 변할 수 없다. 력사의 경험은 이것을 똑똑히 말해 주고 있다.

조선에 대한 옛 지위를 회복하려는 야망을 품고 일제는 최근 박 정희 도당이 《한 일 회담》의 속결을 서두르는 것을 기회로 또다시 남조선에 대한 침투를 로골적으로 추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 본격적인 경제적 침투를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문화적 침습을 이에 선행시키며 각이한 형태와 방법으로 남조선 사회 생활에 급속히 기여 들고 있다.

그리 하여 일제의 문화적 침투는 패망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장차 남조선과 아세아 지역을 또다시 저들의 예속 하에 넣어 보려는 재침 기도 실현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감히 남조선에 기여 들려고 발악하는 데에는 그들 자체의 이러한 침략적 욕망이 우선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미제의 조작이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미제는 《한 일 국교의 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일제를 리용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는 데 그들을 《돌격대》로 내몰려는 목적으로 일제의 남조선 침투를 적극 지지하고 추동해 왔다.

미제는 우선 《한 일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일제의 남조선 침투의 길을 열어 놓으며 일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결합시켜 침략적 《동북 아세아 동맹》을 결성하려는 책동을 오래전 부터 꾸며 왔다.

미제의 이러한 음모에 장단을 맞추는 박 정희 괴뢰 도당은 허물어져 가는 자기의 파쑈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면서 일제를 남조선에 끌어 들이는 매국 배족 행위를 서슴 없이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런 것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재침 기도는 박 정희 도당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5.16 이후 더욱 적극화되였는바 여기에서 특히 박 정희 도당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그들에게 중요한 자극을 주었다.

박 정희 도당은 일제와의 결탁이 《번영의 터전》을 이룩하는 길인듯이 말하면서 자기들의 매국 정책을 정당화하며

일제 문화의 대대적인 침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외국 문화는 민족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량식》으로 된다는 구실로 자기들의 반인민적 책동을 변명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남반부에는 《한 일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 많은 《친일》 단체가 조직되여 《한 일 친화》를 선전하고 있다. 《일장기》 (日章旗)를 앞세운 일제 침략의 척후병들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비롯해서 상인, 종교인, 문화인들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면서 련'이어 기여 들고 있다. 그리 하여 해방 전 일제가 부르짖던 이른바 《동조 동근론》이 오늘 또다시 소생하고 있다.

그들은 한 때 《일 한》 두 나라 사이를 가리켜 《가장 가까운 나라끼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였다면 박 정희 도당이 《대일 저자세 외교》 정책을 실시하는 오늘에 와서는 《일 한》 두 나라가 《부자지 간》으로 아주 가까와졌다고 떠들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문화적 침투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진행되고 있는바 여기서 특히 반동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종교 단체들의 침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우선 남조선에서 일제의 침략적 지반을 구축하는 데에 활동의 주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침투한 국수주의적 정치 종교 단체인 《창가 학회》와 《천리교》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노리면서 조직적으로 자기 활동망을 늘이고 있다.

《창가 학회》와 《천리교》는 사기적인 교리로 인민 대중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그들 속에 숭일 사상을 부식시키려는 반동적인 정치 종교 단체로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해외 팽창 정책과 타국에 대한 사상적 침략 수단으로 적극 복무하고 있다. 일제가 오늘 남조선에 《창가 학회》를 적극 침투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발간되는 한 신문이 《일본 〈가미가제〉 래습》이라는 표제의 글에서 일제가 《창가 학회》를 남조선에 급격히 전파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일본 독점 자본의 지배 하에 몰아 넣기 위한 전초 작전으로서의 정신 공세》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창가 학회》와 함께 남조선에 들어 온 《천리교》 역시 그 교리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목적과 본질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다같이 재침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기여 든 일제의 척후병들이다.

이들의 본질과 목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도당은 작년 12월 21일에 《천리교》를 《합법 종교 단체》로 《문교부》에 정식 등록하게 하고 그의 대대적인 전파를 장려하고 있다.

오늘 종교 단체와 더불어 침투하고 있는 《왜색》, 《왜풍》은 남조선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무서운 병균과도 같이 침투되여 민족 주체 의식과 정서를 극도로 마비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후대들의 정서 생활에 파멸적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놀고 있는 것이 일본 출판물이다.

각종 반동 사상과 일제의 해외 팽창 정책을 선전하는 정기 간행물과 퇴폐적인 문예 서적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 그 종수는 무려 200 여 종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영화 배우들의 저속한 취미와 사생활을 소개 선전하는 《에이

가노 도모》(映畫之友)와 같은 책들만 해도 45만 권 이상이나 들어 오고 있다.

《젊음이 흐르는 강》, 《알송달송》, 《장미의 수형》, 《사랑이 끝날 때면》 등 그 제명만 들어도 구역질 나는 10~20 대 청소년들의 추잡한 색정 세계를 그린 소설들이 번역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미야모도 무사시》와 같은 사무라이 정신을 고취하는 소설들도 뻐젓이 번역되고 있다.

그리 하여 남조선의 서점들은 일본 출판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바 서울에서만도 이러한 출판물들의 판매소가 12 개소나 되며 부산, 대구를 비롯한 각 도시들에 여러 개씩 있다. 이 외에도 순전히 낡은 일본책만 파는 서점은 무려 1,000 개소가 넘는다. 민족적 량심의 편린마저 저버린 남조선의 출판업자들은 젊은 세대의 장래나 나라의 운명에는 상관 없이 순전한 영업 목적으로 퇴폐적인 일본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다. 지어 신문에 나는 책 광고에까지 일본 작가의 작품이 대서특필로 소개되고 있으며 방송에서 그들의 작품이 련속 랑독되고 있다.

일본 출판물의 대대적인 전파는 남조선의 몰지각한 문화인들 속에서 친일 사상과 민족 허무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하는 비렬한 행위들을 산생시키고 있다.

퇴폐적인 일본 소설들은 번역되기가 무섭게 영화계에서는 이를 표절하여 영화를 만드는 데 때로는 한 개의 일본 소설이 이름만 다른 두 개 《국산 영화》로 제작되여 물의를 일으키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영화의 표절 행위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 오늘 남조선 영화의 90 퍼센트가 일본 영화의 표절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들의 화면에는 일본의 《하오리》, 《하까마》를 입은 배우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본 도시들의 밤 유흥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각을 어지럽히고 있다. 《사루도비 사스께》라는 일본 영화가 만화 영화 《요술 소년》으로 변조되여 상영되였는데 이러한 영화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사무라이》의 칼 싸움을 흉내 내다가 곤봉으로 자기 동무의 머리를 쳐서 즉사케 한 사실까지 빚어지고 있다.

과학계에서 표절 행위도 문학 예술계만 못지 않게 로골적이고 파렴치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조선의 어떤 의학자는 일본책에 실린 의학 론문을 그 대로 베껴서 《의학 박사》가 되였는가 하면 고려 대학의 어떤 교수는 《트루맨의 대한 정책》이라는 자기 론문에서 일본의 《이등 박문》이 《한일 합병》을 반대했다는 망발까지 늘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것이면 무조건 따르려 하며 자기의 력사와 문화를 외곡하는 것마저 서슴지 않는 이런 매국 배족 행위는 오늘 남조선의 일부 문화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로 민족 허무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들 자신의 죄에도 있지만 해방 후 19 년 간 미제와 매국 역적들의 반동적 반인민적 통치가 이러한 결과를 빚어 내였으며 또 계속 빚어 내고 있다. 제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였고 또 만들어 낼 능력도

없는 조건 하에서 일제의 퇴폐적인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고 그것을 아무런 렴치도 수치감도 없이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쯤은 이젠 예사로운 일로 되고 말았다. 게다가 풍전 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는 자기들의 운명을 일제와 결탁함으로써 구원해 보려는 박 정희 도당이 이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왜색》, 《왜풍》의 침습은 이런 것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

남조선 사회 생활을 더욱 타락시키고 헤여날 수 없는 궁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비애, 절망과 고독을 강요하는 부패한 류행가와 왜음판 레코드의 범람이다.

남조선의 거리들과 골목들에서는 《월하의 나포리》, 《하나》, 《오에도 니혼바시》 등 일본 류행가들과 《리별의 하네다 공항》, 《명동의 장미》 등 일본 류행가를 표절한 노래들이 때 없이 불리여져 사람들을 타락과 애상의 세계에로 몰아 넣으며 무기력과 허무주의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음악가는 《일본 색조의 침식에 대한 숙청의 대담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가요의 근본은 완전히 바다 건너의 점령 지대가 될 것 같다. 왜색에 오염된 우리 음악계에 철저한 방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왜색 침습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주체성을 잃은 〈정신 환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개탄하고 있다.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대담한 대책》이니 《방비 태세》니 하는 말만으로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들의 사상 감정을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고상한 인민적 선률, 부정의를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의 의지와 지향을 묶어 세우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줄 수 있는 인민적 음악을 이에 대치시키는 것만이 왜음악의 침습을 이겨 낼 수 있는 길이다. 남조선 음악가들이 퇴폐적인 음악을 만들어 내는 데서 해방되여 사실주의의 립장에 서지 않는 한 이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실 오늘 남조선의 많은 독자나 관람자들이 일본 것에서 그 어떤 매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남조선의 문학 예술이 그 만큼 부패 타락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작가, 예술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자신이 독자 관람자들에게 안겨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훌륭한 작품도 만들어 내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산을 스스로 망쳐 놓고 국적 불명의 것으로 변조시키지 않았는가? 그들이 이러한 립장에 서 있는 한 퇴폐적인 일제 문화의 침습도, 박 정희 도당의 문화 말살 정책도 결코 방지해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의 한 비평가가 《오늘의 한국 문학 예술에서 그 어떤 예술성을 운운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며 이런 조건 하에서 독자들이 일본 것에 매여 달리는 데 어찌 그들만을 탓하겠는가》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제 문화의 침습을 받고 있는 남조선 사회 정치 생활은 일부 사람들의 이러한 개탄이나 비판에는 아랑곳 없이 더욱 처참한 형편에 빠져 들어 가고 있

다. 남조선 거리들에서 풍기는 《왜색》, 《왜풍》은 일본어의 대대적인 류행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남조선 거리들에서는 한때 우리 인민의 귀에 그토록 거슬리던 일본말 절반 조선말 절반의 대화들이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 있으며 《미스터 김》과 더불어 《최 상》, 《리 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튀여 나오고 있다. 심지어 10 대 소년들 속에서까지 만나면 일본말 인사가 오가고 있다.

일본말은 그 시세가 점점 높아져 지금 남조선에는 《일어 강습소》가 무려 600 개소를 넘으며 일어 개인 교수의 간판이 도처에 나붙고 있다.

《한국행 빠스》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오는 《왜색》, 《왜풍》은 이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남조선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을 포위하고 남조선 인민의 문화 도덕 생활을 파국에로 몰아 넣고 있다.

한때 《민족 자주 의식》이요, 《민족 문화 건설》이요 하는 구호를 열병 환자의 잡소리처럼 떠벌리면서도 그 리면에서는 일제를 끌어 들인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정책이 빚어 낸 결과는 이러하다. 오늘 남조선의 모든 사회 현실은 그들의 진면모를 여지 없이 드러내 놓았다.

남조선 인민들, 특히 청년 학생들과 량심적 문화인들은 차츰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시작하였고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정책을 반대하는 그들의 기세도 날로 높아 가고 있다. 해방 후 오늘까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가 남조선 사회에 끼친 엄중한 후과를 쓰라리게 체험한 그들은 일제 문화의 침습으로부터 민족 문화를 고수하며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양식과 건전한 도덕 풍습을 수호하는 길은 오직 미제 침략 세력과 박 정희 도당을 종국적으로 타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이러한 각성된 투쟁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한 일 회담》 속결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경험과 각성은 더욱 장성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 전통은 남조선에서도 인민의 힘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습으로부터 고수될 것이다.

력사적 경험이 있고 인민 대중의 각성된 투쟁이 있고 더우기 조국의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가 서 있는 한 일제가 남조선에 다시 발을 붙이고 살 수는 없다.

근 로 자 제 13 호 (루계 25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7월 3일 발행 1964년 7월 5일

ㄱ—430412 값 40 전